

# '겨울 진미' 매생이 생산 크게 늘다

### 장흥·강진·보성 이어 완도·진도서도 양식 생산량·소득 두배 증가...올 120억원 예상



전남 중부지역에서만 생산되던 매생이가 완도와 진도 등 남해안에서도 본격 생산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겨울철 진미로 꼽히는 매생이가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320여개가 998t의 매생이를 생산해 59억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올해는 2천t 생산에 120억원대의 소득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종전에는 장흥과 강진, 보성 등 중부 일부지역에서만 매생이가 채취했으나 올해부터 완도, 진도 등 전남 남해안 지역에서도 출하되고 있다. 완도군의 경우 지난 10월 고급면업도 일대 청정 해역 81ha에 조성된 양식어장에 첫 매생이 수확에 나서고 있다. 진도군도 연초 양식적으로 조사된

임회면 죽림지선에 10ha 규모의 매생이 양식어장을 조성해 본격 출하를 앞두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미역이나 다시마 생산에 앞서 1~3월까지 어항기 부업으로 매생이를 양식, 호당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어 앞으로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양식면적이 늘어나면서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도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대비해 적정 시설배를 권장하고 4계절 판매가 가능한 식품 개발과 가공공장 건립, 일본시장

개척 등 판로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매생이는 철분과 칼슘, 요오드 등 각종 무기염류와 비타민이 다량 함유돼 있어 성인병 예방, 다이어트에 유

효하고, 육아, 노인, 허약자의 원기 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채희중기자 chae@

## 문광부 '구례 산수유축제' 후원 내년도 문화관광 축제 선정 돼 국비 3천만원 지원 ... 홍보·마케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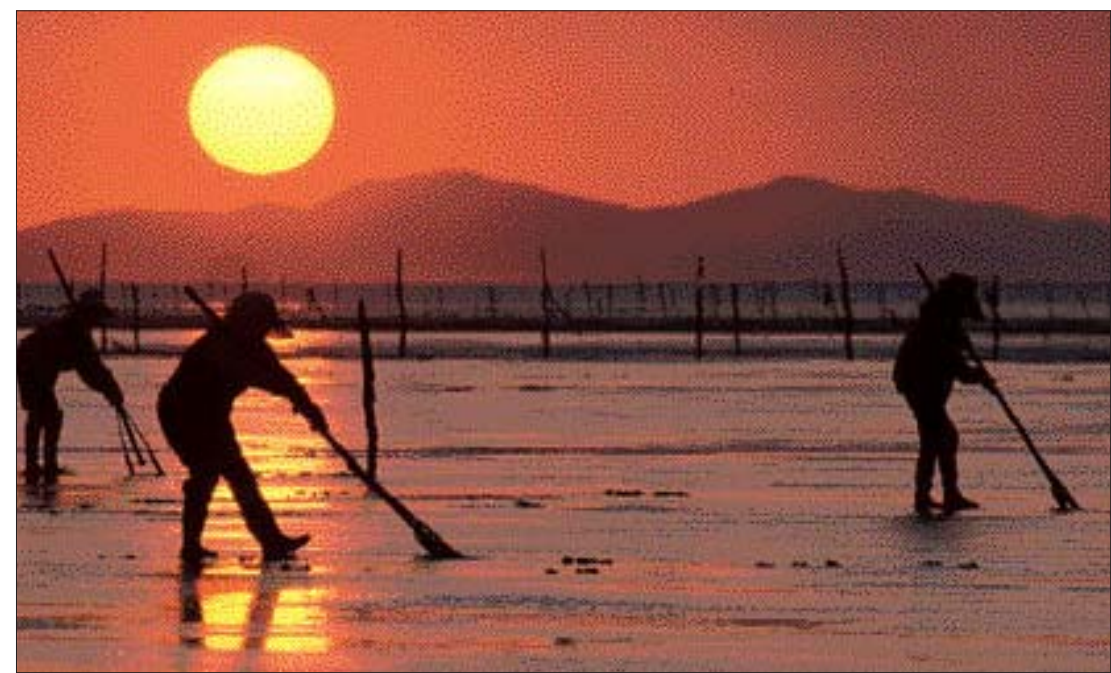
'구례 산수유축제'가 문화관광부의 내년도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돼 국비 3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내년에 열리는 구례 산수유축제는 문광부 후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한국관광공사 해외 지사망을 통한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례군은 매년 3월 중순 산수유축제를 열고 있는데 올해는 76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한편 구례군은 제10회 산수유축제를 내년 3월13일부터

16일까지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 온천지구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구례군은 또 행정 자치부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을 받았다. 구례군은 지리산 아생화 원개밭과 산수유 특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례=김종호기자 dhkim@

## 한국전기공사 전남도협회 500만원 상당 위문품



한국전기공사 전남도협회 유재선 회장(사진)과 임원들이 지난 26일 보성읍 과별교를 지역 불우시설을 찾아 500여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보성 출신인 유 회장은 꾸준히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보성군체육회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 유 회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벌여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 올해의 마지막 석양 ... 영광 백수로 오세요

### 郡, 칠산정 특별무대 해넘이 행사

오는 31일 영광군 백수 해안도로에서 올해 마지막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다채로운 해넘이 이벤트가 열린다. 이날 행사는 오후 3시30분부터 칠산정 주변의 특설무대에서 팝페라·퓨전 국악 공연과 해넘이 영상으로 시작돼 희망의 풍선 날리기, 촛불 소원 빌기 등으로 이어진다.

해가 진 뒤에는 멀티미디어 쇼, 불꽃놀이, 마술공연 등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군은 이날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백수 해안도로 일부를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하는 한편 편도 4km를 주차장으로 활용키로 했다. 백수 해안도로는 올해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선정될 정도로 빼어난 경관과 다양한 먹거리가 산재해 있다. <사진> 한편 영광 원자력본부는 칠산대교가 백수 해안도로로 연결되는 지점의 6천㎡ 부지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비롯해 '헬검 투 영광 카운티' 등 경관 조형물을 설치해 관광객들을 맞는다. /영광=조익성기자 ischo@

## 농어촌 중환자용 구급차 배치

### 전남도 소방본부 40억 들여 2010년까지 20대

전남지역 농·어촌에 응급실 수준의 진료 및 처치가 가능한 원격화상 진료 시스템을 갖춘 '중환자용 구급차'가 배치된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내년부터 응급의료기관과 원거리에 위치한 농·어촌지역부터 중환자용 구급차를 배치한다. 중환자용 구급차는 내부에 설치된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통해 환자 상태를 전문병원 의사가 실시간으로 진료가 가능해 병원 응급실 도착까지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전남도 소방본부는 40억원을 들여 오는 2010년까지 20대를 배치할 계획이며, 내년에 7대가 우선 배치된다. 중환자용 구급차에는 광주·전남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9주간의 임상수련을 수료한 35명의 전문구급대원이 탑승한다. 소방본부는 내년 하반기에 임상수련을 거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응급구조사 과정'을 신설해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곡성군의의회도 의정비 '절끔 인하'

### 47% 인상률 비해 0.7% 내려

2008년 의정비를 47%나 인상해 행사부로부터 인차 권고를 받았던 곡성군의의회가 의정비를 내렸으나 액수가 너무 적어 '생색 내기 인차'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곡성군의의회는 지난 26일 당초 3천506만원으로 올릴 예정이었던 내년 의정비를 26만원 인하여 3천480만원으로 결정했다.

인하폭이 0.7%에 불과한 26만원으로 결정되자 지역 사회단체인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곡성군민 모임'은 이날 "군민을 우롱하는 생색내기 인차를 철회하라"는 비난성명을 냈다. 이 모임은 "이번 쥐꼬리 의정비 인하는 군의회가 여론에 대해 귀를 막고 열악한 지방재정은 뒷전인 채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고 주장했다. /정필수기자 bungy@

## 유난히도 말이 많았던 장흥군수 재선

홍 군정에서는 4·5급 승진을 비롯해 대규모 인사가 임박해 있다. 벌써부터 선거 공과를 둘러싸고 살생부가 작성돼 있다는 등의 괴소문이 과다하다. 이명훈 군수는 선거 기간동안 절연과 출사는 풍토를 뿌리 뽑는 능력 위주의 인사를 공약한 바 있다. 특히 장흥을 잘살게 하는 '경

로 작용해 왔다. 연말을 앞두고 장흥 군정에서는 4·5급 승진을 비롯해 대규모 인사가 임박해 있다. 벌써부터 선거 공과를 둘러싸고 살생부가 작성돼 있다는 등의 괴소문이 과다하다. 이명훈 군수는 선거 기간동안 절연과 출사는 풍토를 뿌리 뽑는 능력 위주의 인사를 공약한 바 있다. 특히 장흥을 잘살게 하는 '경

## '혈연·보은 인사' 악순환 끊자

이 전남 최고인 75.4%를 기록한 것도 각 문종에서 득표에 열을 올린 덕분이었다. 이같은 혈연 중시 풍토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공약이나 인물 뭉치는 뒷전인 채 어느 문종 출신인가가 우선시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혈연 위주의 선거 풍토가 신임 군수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선거의 공과를 따지는 '혈연·보은 인사' 시비가 되풀이되면서 지역발전과 화합의 걸림돌



김용기 <사회2부 장흥주재>

제 군수'가 되겠다는 포부를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가 배치되어야 한다. 적과 야군을 구별하는 구태의연한 인사가 되풀이되는 나후턴 장흥을 탈피할 수 없다. 과감하게 혈연의 족쇄를 벗어던져야 한다. 이 군수가 첫 인사에서 어떤 작품을 그릴 것인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ykim@kwangju.co.kr

광주·전남 이동기능강화 **대산프리모 남녀기발**

**가발** 확장 이전 이동사 개런지도

**세일 30%**

**초슬림!!**

귀여운 헤어스타일 관리를 도와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대표전화 061-570-2828, 672-4022

11월 20일 **오픈성업중**

강우지구 추악의 콘서트 **랜드피아 7080**

휴일평매만 가수 교체슬림

영성음악 특강유대

영성음악-원정곡-고의대 통곡통 모음 팀곡의 영성

Tel. (062) 381-5542, 382-5542